

# 즐거운 법회 '비법' 공개합니다

## 동련, 어린이 사찰체험 모범 프로그램 모음집 발간

어린이 법회를 보다 즐겁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토요 휴업일을 이용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의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소장 심산)에서 어린이 사찰체험 모범 프로그램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다.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는 법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 책만 보면 어린이와 함께 법회나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 랩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6월 중순 경 발간되는 이 책은 토요휴업일이나 어린이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전래놀이, 미술, 음악, 숲 체험활동, 스포츠, 과학8개 분야, 40개 항목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현직 교사, 스님, 오랫동안 어린이법회 현장에서 활동해온 교사 등 10명의 연구위원들이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실시돼왔던 프로그램 중 아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 정리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요리의 경우, 월별로 세시풍속과 계절 재료를 이용한 요리들로 구성해, 떡국, 영두화채, 수박화채, 숙달떡이, 다식, 국수, 차레 음식 만

## 전래놀이 등 8개 분야 40개 항목 체험 활동과 의미·방법론 담아 본말사 주지 연수 통해 교육·보급

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래놀이의 경우도 부모세대가 해왔던 놀이를 아이들이 참신하고 새로운 놀이로 받아들이면서 각광받고 있다. 글명씨놀이, 공기놀이, 비석치기, 줄다리기 등의 놀이는 컴퓨터 앞에서 혼자 놀던 아이들이 부모 혹은 친구들과 더불어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이 사찰의 구성요소에

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게 이끄는 숲 체험 활동도 인기만점이다. 나뭇잎사귀, 낙엽 등 자연물을 이용한 창작품은 아이들의 독창성을 길러주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숲이 주는 혜택 20가지 적기, 자연 팔레트 만들기 등 숲 체험활동 뒤에 그 활동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동련은 6월 3-4일 열리는 4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두 차례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월 29일부터 7월 27일 열리는 전국 본말사주지연수에서 책자에 담긴 프로그램 교육 및 보급에 나서게 된다.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심산 스님은 "토요휴업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은 포교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천 대방사, 3천 미륵불 봉안

국보 제83호 미륵반가사유상을 축소한 3천 분의 미륵불상이 한 법당에 봉안되고 옥외에는 12미터 높이의 석조 미륵반가사유상(사진)이 조성됐다.

경남 사천 대방사주지 도안은 6월 11일 오전 9시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될 법회에서는 스리랑카 라마니 종단의 메이다랑카 중정 스님이 법문 할 예정이다. (055)833-5197

천미희 기자

## 올 가을 개방 앞둔 내금강의 불교유적

# 부처님 품 속에 온 듯

오는 가을부터 관광이 시작되는 내금강 지역에는 어떤 불교유적이 있을까. 외금강이 남성적인 산악적 풍미를 자랑한다면 내금강은 유명 사찰과 불교문화유적을 포함한 수려한 계곡으로 알려져 있다. 98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시 이후 내금강 지역에 대한 답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5월 27일, 표훈사에서 묘길상까지 약4km 구간을 답사한 현대대산과 조계종 총무원 답사팀이 탐방한 내금강 명소 5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북한 국보 제46호 지정돼 있는 묘길상(妙吉祥)은 고려 말기에 묘길상암을 중창한 나옹(懶翁) 선사가 직접 새겼다는 좌불상으로 문수보살(文殊菩薩)의 다른 이름이다. 안정감 있는 연화좌(蓮華座)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며 오른손은 위로 쳐들어 시무외인(施無畏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여원인(與願印)을 취하였다.

얼굴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반면에 아래의 옷 부분은 굵고 굳세며 야외광선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잘 나타냈다.

○...내금강 만폭동에 있는 보덕암은 만폭동 분설담의 오른쪽 절벽에 매달리듯 서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묘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보덕굴이란 이름은 옛날 이곳에서 마음씨 착한 보덕각사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670년에 창건된 만폭동 어귀에 있는 표훈사는 원래 20여채의 건물로 이뤄져 있었으나 지금은 반야보전 영상전 명부전 등 일부만 남아있다.

표훈사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다리는 주변의 기암들이 개울물에 비쳐 아름답기로 유명한 함영교(含影橋 : 그림자를 머금고 있는 다리)가 있기도 하다.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금강산 장경봉(長慶峰) 아래에 있는 장안사 옛터. 신라 법흥왕 때, 또는 551년(양원왕 12) 고구려의 승려 해량(惠亮)이 신라에 귀화하면서 창건하였다고 한다.

○...북한 보물급 41호인 삼불암도 빼놓을 수 없는 내금강의 불교유적이다. 높이 8m, 길이 9m인 삼불암은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봉래동에 소재한 마애불. 세 부처를 새긴 바위 뒷면에는 앞면과 같은 넓이에 60분의 작은 부처를 새겼다.

노병철 기자



북한 국보 제46호 '묘길상'



표훈사 전경.



북한 보물 제41호 '삼불암'

## 묘길상-나옹 선사 조성 설 표훈사-창건 당시 20여채 삼불암-뒷면 부처 60분 새겨 보덕암-절벽 위 암자 '탄성'



보덕암

## 부산불교실업인회 '묘광선원' 개원

### 정기법회·문화 강좌·청소년 포교에 활용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운환)는 5월 30일 부산불교실업인회관 옥상에 묘광선원을 개원하고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감로사 주지 혜종 스님, 부산불교실업인회 공병수 회장,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법회는 부처님 봉안의식에 이어 공로패 전달, 회장 인사, 축사, 법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묘광선원은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건립한 법당으로 이날 개원법회에서 이수환 감사, 이환길 사업이사, 조재



묘광선원 개원법회 모습.

원 이사, 김명준 회원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김운환 회장은 "부산불교실업인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법당 건립을 하게 돼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며 "앞으로 묘광선원이 부처님 법을 널리

는 퍼는 포교 도량,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묘광선원은 앞으로 법회공간이 없는 신행단체의 법회 공간이나 각종 문화 강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051)818-9914

글·사진=천미희 기자

## 소년소녀가정돕기 혜원음악회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혜)은 5월 27일 부산 혜원정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소년소녀가정돕기 혜원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조계종 원로원이자 혜원정사 조실인 고산 스님을 비롯 부산사회복지가관협의회 회장 혜종 스님 등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지은아 부산불교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혜원정사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혜원 이사장 원혜 스님은 백현아 등 20명의 소년소녀가정에 장학금과 전담하며 격려했다. 이어진 2부 열린 음악회는 설운동, 유지나, 우순실, 하남석, 난타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한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5주년

부산 미룡사(주지 정각)는 5월 28일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미룡사바라밀합창단(단장 이정희) 창단 5주년 기념발표회를 개최했다.

미룡사신도회 주최,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주관으로 열린 발표회에서는 정수연씨의 지휘와 최지선씨의 반주로 25명의 단원들이 찬불가와 가곡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단원들이 한 송이 연꽃을 들고 영산회상을 재현한 독특한 무대 연출로 막을 올렸다. 이어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은 황신, 묵탁치는 스님, 정도발원문 등의 찬불가와 장안사, 석굴암, 수덕사 등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특별공연으로 민요춤, 남성중창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 견불사, 호국영령추모대제

경남 견불사(회주 대풍)는 6월 6일 지리산 견불사 야외상설무대에서 제9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족상징에 의한 무주고혼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행복한국(이사장 대풍)과 공동주최로 열린 '용서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추모대제'는 1부 추모식, 2부 국악한마당, 3부 범종법패 천도의식, 4부 영화제로 알차게 꾸며졌다. 천미희 기자

# 周易 講義 의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짝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장 소 : 寶明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6월 17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 ~ 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 필 석 居士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법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 재단법인 寶明寺 보명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